

북한 및 통일을 바라보는 북제주군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강근형

(제주대학교)

〈 국문 요약 〉

이 글은 제주도 북제주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관심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심을 보면, 관심이 없다고 한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약간 많았다. 그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 없는 평화통일을 선호하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한민족의 정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일 높았다. 그들은 또한 북한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 내지는 협력해야 하는 친구로 본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약간 높았으나, 이를 용인하는 진보주의적 견해도 43% 정도를 보였다. 이는 전국 청소년 조사결과 보다 10% 정도 많은 수치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거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도의 대북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략 56% 정도를 보였다.

셋째, 학교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불만족인 학생이 많았으며,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강의 방식과 최신자료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청소년 관련 사항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북제주군 청소년들이 북한 핵개발과 대북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 전국 청소년들보다 대략 10% 정도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있는 점 이 큰 특징이다.

주제어: 통일의식, 통일교육, 평화통일, 화해협력정책,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 경제협력, 경제원조, 언론매체, 교육방법, 설문조사

I. 서론

1945년 민족이 분단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가 되었으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 모두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도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른 이념체제 하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활방식에 어느 덧 익숙해짐으로써, 통일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비관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의 냉전 종식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념갈등의 종식은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의 화해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여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고 있으며,¹⁾ 이와 더불어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한층 높아지고 있음은 명백하다.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분단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6.25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생애에는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남북통일 문제는 기성세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새 역사를 펼칠 통일승계세대로서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은 그 어느 세대보다 막중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1) 남북간 인적교류는 2000년 8,742명에서 2005년에는 10배 이상 급증하여 88,341명을 기록하였다. 2005년 한 해 남북왕래인원(88,341명)이 분단이후 60년간 왕래인원(85,400명)을 상회했다. 남북간 교역규모도 2005년에 최초로 10억불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여 북한의 총 무역액(약 40억 달러)의 1/4 수준이다. 통일부, 『통일백서』(2006), p. 103 참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탐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야 할 주역인 동시에,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림은 물론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건전한 시각과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관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 북제주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향후 통일의 동력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북제주군 소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관, 북한 인지도와 대북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견해, 북한·통일 문제 관련 정보획득 경로, 그리고 통일교육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제주도 북제주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의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통일관련 의식 4문항, 북한관련 의식 5문항, 통일교육관련 의식 4문항으로 모두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북제주군 소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교 저학년과 초등학생은 아직 설문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모집단은 고등학교는 세화고, 함덕정보산업고, 제주외국어고, 애월종합고, 한림고, 한림공업고, 고산정보산업고에서 각 학년별 1학급씩을, 중학교는 조천중, 귀일중 3학년에서 1학급씩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886명이다. 자료 수집은 북제주군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이다.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부호화(coding), 자료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1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미래리서치사'에 의뢰 전산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활용된 분석 방법은 단순빈도분석법과 변량분석방법을 사용했는데, 단순빈도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변량분석방법에 의한 결과 자료를 통하여 배경변인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배경변인별 분석은 성별, 학년, 거주지별로 하였으며,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의식조사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논문들에 대한 문헌연구도 병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빈도	백분율
		886	100.0
구분	고등학생	682	77.0
	중 학생	204	23.0
성별	남 학생	327	36.9
	여 학생	559	63.1
학년별	중학교 3년	204	23.0
	고등학교 1년	227	25.6
	고등학교 2년	208	23.5
	고등학교 3년	247	27.9
거주지별	제 주 시	400	45.1
	북 제 주 군	440	49.7
	서 귀 포 시	8	4.3
	남 제 주 군	38	0.9

Ⅲ.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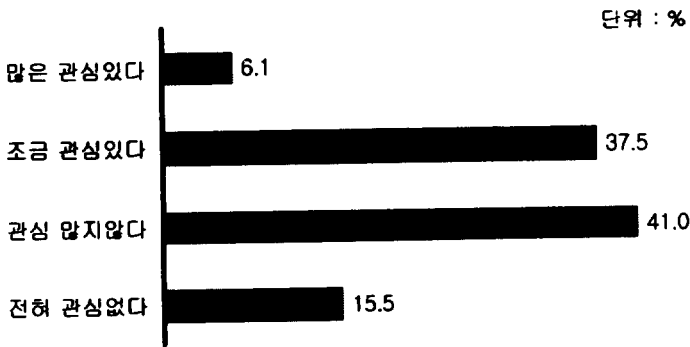
1. 통일관련의식

1) 북한 및 통일 문제 관심 정도

□ 제주도 북제주군 소재 중3학생과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8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학생의 56.5%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고, '관심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3.6%이다. 이 자료로 볼 때, 북제주군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반반 정도이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국정홍보처에서 2005년에 조사한 결과²⁾는 '관심 있다'(58.8%), '관심 없다'(41.2%)와 비교하면 북제주군의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에서 2004년에 조사한 결과는 '관심 있다'(42.6%), '관심 없다'(57.4%)로서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³⁾



〈그림 1〉 북한 및 통일문제 관심 정도

-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34.6%)이 관심정도가 가장 낮은 반면, 고등학교 1학년(47.1%)이 관심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이나 거주지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55.1%)이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학생(18.6%)보다 훨씬 관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국정홍보처 2005년 조사는 월드리서치를 통해 2005년 5월 27 - 6월 13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 523명, 고등학교 477명)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북관, 통일관,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한 견해,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월드리서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서울: 월드리서치, 2005. 6) 참조.

3) 통일연구원, 「2004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통일연구원, 2005. 12. 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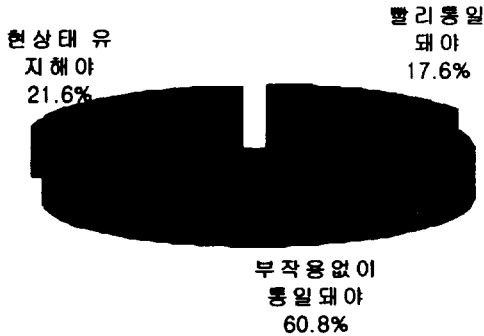
〈표 1〉 북한 및 통일문제 관심 정도

구 분	사례수	전혀 관심 없다	관심이 많지 않다	조금 관심 있다	많은 관심 있다	평균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15.5	41.0	37.5	6.1	2.34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682)	16.3	41.2	35.9	6.6	2.33	
중 학생	(204)	12.7	40.2	42.6	4.4	2.39	
☒ 성 별 ☒							
남 학생	(327)	18.7	35.8	37.6	8.0	2.35	
여 학생	(559)	13.6	44.0	37.4	5.0	2.34	
☒ 학 년 별 ☒							
중 3	(204)	12.7	40.2	42.6	4.4	2.39	F=5.13 P=0.001
고 1	(227)	10.6	42.3	40.5	6.6	2.43	
고 2	(208)	23.6	41.8	30.3	4.3	2.15	
고 3	(247)	15.4	39.7	36.4	8.5	2.38	
☒ 거 주 지 별 ☒							
제 주 시	(400)	16.8	41.3	34.5	7.5	2.33	
북제주군	(440)	14.1	41.1	39.3	44.8	2.36	
서귀포시	(8)	37.5	25.0	37.5		2.00	
남제주군	(38)	13.2	39.5	47.4		2.34	
☒ 통일찬반별 ☒							
통일돼야	(606)	6.9	38.0	47.0	8.1	2.56	F=169.23 P=0.000
통일안돼도	(280)	33.9	47.5	16.8	1.8	1.86	

2) 남북통일에 관한 의견

- ‘남북통일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늦어지더라도 부작용 없이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이 되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21.6%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부른 통일보다는 부작용 없는 평화통일을 선호한

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부작용이 따르는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사실이 그런 것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국정홍보처의 전국 청소년의 외식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 조사에서는 “다소 늦더라도 부작용 없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64.8%),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17.1%), 현 상태 유지(18.1%)로 나타났다.⁴⁾



〈그림 2〉 남북통일에 관한 의견

-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72.5%)이 ‘고등학생’(57.3%)에 비해 “부작용 없이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고등학생’(23.8%)이 ‘중학생’(14.2%)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이 ‘부작용 없이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의견에 대해 고3학생들의 동의 정도는 5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빨리 통일돼야 한다”(29.5%)는 의견이 많은 반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32.4%)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이하의 국정홍보처 2005년 조사 자료는 주)월드 리서치, 「청소년 통일외식 조사」(서울: 월드리서치, 2005. 6) 참조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부작용 없이 통일돼야 한다"(73.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62.9%)는 의견이 많은 것이 특이하다.
- 거주지별 차이점은 크지 않으나, 서귀포 거주 청소년이 다른 지역 거주지 학생들보다 '현상태유지'(37.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작용 없이 통일돼야'(37.5%)와 동일한 의견을 보인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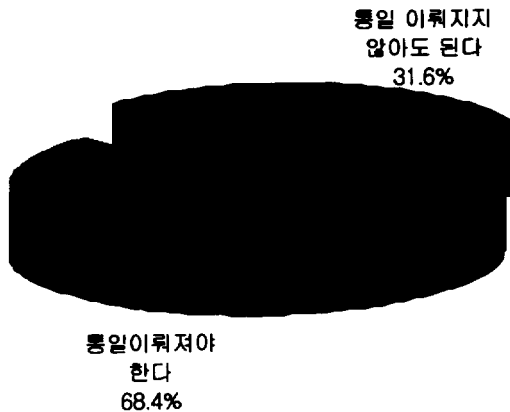
〈표 2〉 남북통일에 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빨리 통일돼야	부작용없이 통일돼야	현상태 유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17.6	60.8	21.6	
☒ 학교구분별 ☒					$X^2=15.48$ $P=0.000$
고등학생	(682)	18.9	57.3	23.8	
중 학생	(204)	13.2	72.5	14.2	
☒ 학 년 별 ☒					$X^2=31.84$ $P=0.000$
중 3	(204)	13.2	72.5	14.2	
고 1	(227)	18.1	60.8	21.1	
고 2	(208)	12.5	57.7	29.8	
고 3	(247)	25.1	53.8	21.1	
☒ 거 주 지 별 ☒					$X^2=13.14$ $P=0.040$
제 주 시	(400)	18.8	55.5	25.8	
북제주군	(440)	16.4	66.1	17.5	
서귀포시	(8)	25.0	37.5	37.5	
남제주군	(38)	18.4	60.5	21.1	
☒ 통일문제관심☒					$X^2=118.35$ $P=0.000$
관심 없음	(500)	8.4	59.2	32.4	
관심 있음	(386)	29.5	63.0	7.5	
☒ 통일찬반별 ☒					$X^2=421.92$ $P=0.000$
통일되어야	(606)	24.4	73.1	2.5	
통일안돼도	(280)	2.9	34.3	62.9	

3) 남북통일 성사여부 찬반

□ ‘남북통일 성사여부 찬반’을 묻는 질문에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68.4%,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3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정홍보처 200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여기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81.9%), 현상태유지(18.1%)로 나타나 복제주군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국의 청소년보다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 남북통일 성사여부 찬반

-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75.5%)’은 ‘고등학생(66.3%)’에 비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72.2%)’이 ‘여학생(66.2%)’보다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에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은 59.6%로 가장 낮았다.
- ‘통일문제 관심 여부별’로는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86.5%)이

‘관심 없는 학생’(54.4%)보다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즉,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남북통일 성사여부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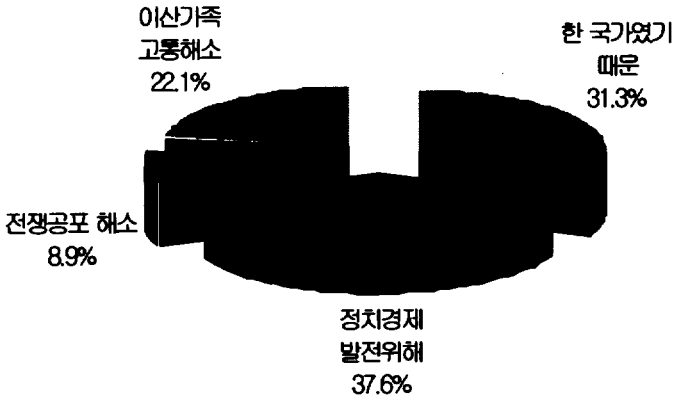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통일 이뤄져야 한다	통일 안 이뤄져도된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68.4	31.6	
☒ 학교구분별 ☒				$X^2=6.17$ $P=0.013$
고등학생	(682)	66.3	33.7	
중 학생	(204)	75.5	24.5	
☒ 성 별 ☒				
남 학생	(327)	72.2	27.8	
여 학생	(559)	66.2	33.8	
☒ 학 년 별 ☒				$X^2=12.91$ $P=0.004$
중 3	(204)	75.5	24.5	
고 1	(227)	70.9	29.1	
고 2	(208)	59.6	40.4	
고 3	(247)	67.6	32.4	
☒ 거 주 지별 ☒				$X^2=8.51$ $P=0.036$
제 주 시	(400)	63.5	36.5	
북제주군	(440)	72.7	27.3	
서귀포시	(8)	62.5	37.5	
남제주군	(38)	71.1	28.9	
☒ 통일문제관심 ☒				$X^2=104.02$ $P=0.000$
관심 없음	(500)	54.4	45.6	
관심 있음	(386)	86.5	13.5	

4) 남북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

□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6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를 파악한 결과, “한민족의 정

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다. “우리는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이란 응답은 30.5%이었고, 다음으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란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이 자료 결과는 북제주군의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을 통해 우리민족이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원래 한민족이었다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매우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 국정홍보처 조사에서는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41.0%)이라는 민족공동체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남북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

-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38.1%)이라는 이유를 가장 높게 들었다. 여학생은 “정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37.6%)이란 응답이 더 많았다. 거주지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서귀포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정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6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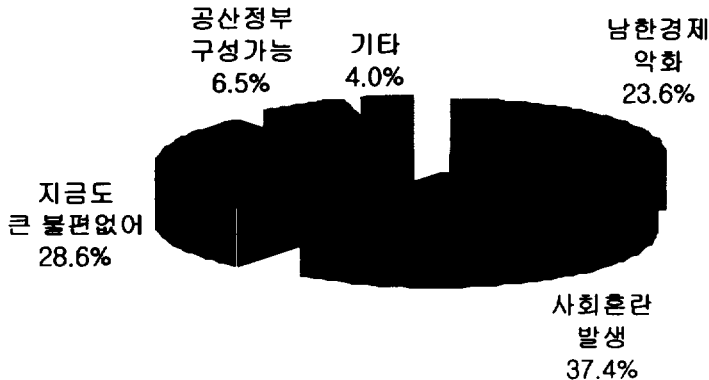
〈표 4〉 남북통일이 되어 하는 이유

구 분	사례수	하나의 국가였기때문	정치경제발전 위해	전쟁 공포 해소	이산가족고통 해소	기타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606)	30.5	36.6	8.7	21.5	1.5	1.2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452)	29.4	36.3	9.1	22.8	1.5	0.9	
중 학생	(154)	33.8	37.7	7.8	17.5	1.3	1.9	
☒ 성 별 ☒								X ² =17.24 P=0.001
남 학생	(236)	38.1	35.2	10.6	14.8	1.3		
여 학생	(370)	25.7	37.6	7.6	25.7	1.6	1.9	
☒ 학 년 별 ☒								X ² =21.89 P=0.039
중 3	(154)	33.8	37.7	7.8	17.5	1.3	1.9	
고 1	(161)	32.3	37.9	3.7	24.8		1.2	
고 2	(124)	29.0	31.5	12.1	22.6	4.0	0.8	
고 3	(167)	26.9	38.3	12.0	21.0	1.2	0.6	
☒ 거주지별 ☒								
제주시	(254)	29.9	35.8	9.4	20.9	2.4	1.6	
북제주군	(320)	31.6	37.5	7.8	21.6	0.6	0.9	
서귀포시	(5)	40.0	60.0					
남제주군	(27)	22.2	29.6	14.8	29.6	3.7		
☒ 통일문제관심☒								X ² =21.37 P=0.000
관심 없음	(272)	24.6	34.2	11.0	27.9	1.8	0.4	
관심 있음	(334)	35.3	38.6	6.9	16.2	1.2	1.8	

5)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2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남북한 주민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도 큰 불편이 없어서”(28.2%)라는 의견과 “이런 식각들이 경제각속과 같. 무상과 같. 수. 이익

서”(23.2%)라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자료 결과는 응답한 학생들이 통일 후 남북한의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우려하고 있고, 현재 남한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6.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가 열린 결과라고 보여 진다. 국정홍보처의 2005년 조사에서도 ‘사회 혼란’(39.2%)을 우려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복제주군 청소년들의 의견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5〉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 ‘학교별’로 보면 “남북한 주민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중학생(44.0%)이 고등학생(35.2%)보다 더 높게 들었다. 성별과 거주지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44.0%)과 고등학교 1학년(42.4%), 고등학교 3학년(37.5%)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36.9%)은 “지금도 큰 불편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가장 높게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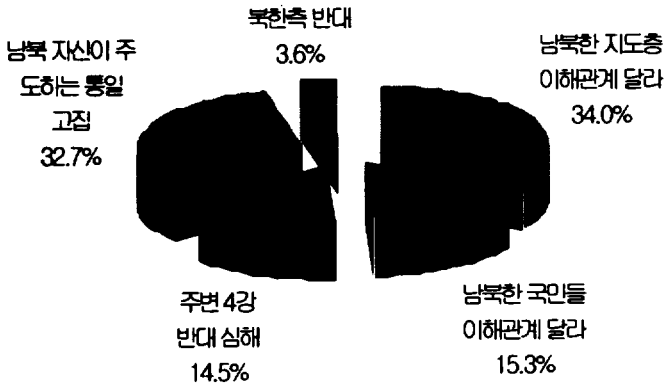
〈표 5〉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구 분	사례수	남한경 제약화	사회혼 란발생	지금큰불 편없어	공산정 부구성 가능	기타	모르 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280)	23.2	36.8	28.2	6.4	3.9	1.4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230)	22.6	35.2	30.0	6.1	4.8	1.3	
중 학생	(50)	26.0	44.0	20.0	8.0		2.0	
☒ 성 별 ☒								
남 학 생	(91)	20.9	34.1	29.7	7.7	4.4	3.3	
여 학 생	(189)	24.3	38.1	27.5	5.8	3.7	0.5	
☒ 학 년 별 ☒								
중 3	(50)	26.0	44.0	20.0	8.0		2.0	
고 1	(66)	19.7	42.4	22.7	10.6	4.5		
고 2	(84)	22.6	27.4	36.9	7.1	6.0		
고 3	(80)	25.0	37.5	28.8	1.3	3.8	3.8	
☒ 거 주 지 별 ☒								
제 주 시	(120)	22.6	33.6	30.8	6.8	4.8	1.4	
북제주군	(146)	24.2	38.3	26.7	6.7	2.5	1.7	
서귀포시	(3)	33.3	66.7					
남제주군	(11)	18.2	54.5	18.2		9.1		
☒ 통일문제관심☒								
관심 없음	(228)	21.9	35.1	31.6	5.7	4.4	1.3	$X^2=13.15$ $P=0.010$
관심 있음	(52)	28.8	44.2	13.5	9.6	1.9	1.9	

6)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가 달라서”(33.2%)를 가장 높게 들고 있으며, “남과 북 모두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집해서”(31.9%)와 “남북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15.3%)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 4강의 반대가 심해서”는 14.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이 안 이

루지고 있는 이유가 남북한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보다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청소년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주변 4강의 반대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약 15%정도 나타나고 있어 강대국들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림 6〉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학교별’로는 중학생(38.2%)이 고등학생(31.7%)보다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가 달라서”라는 이유를 더 높게 들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남과 북이 모두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집해서(34.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가 달라서(33.5%)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은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가 달라서”(33.7%)와 “남과 북 모두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집해서”(30.6%) 순으로 ‘남북통일이 안되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남과 북 모두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집해서”(33.0%)와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가 달라서”(32.8%)순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은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가 달라서"(36.6%)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은 "남과 북 모두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집해서"(38.2%)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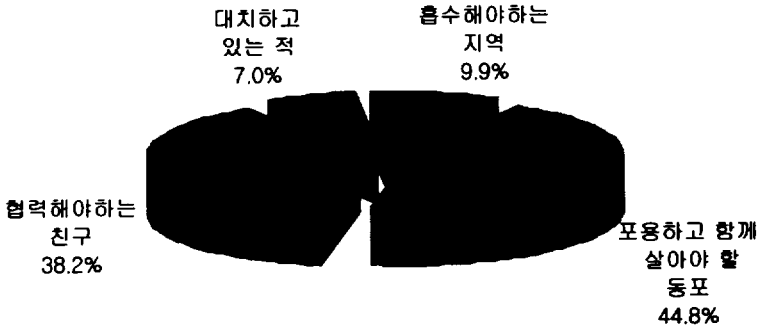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지도층 이해관계 달라	국민들 이해관계 달라	4강국 반대	남북주도통일 고집	북한측 반대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33.2	14.9	14.2	31.9	3.5	2.3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682)	31.7	15.2	15.1	32.4	3.1	2.5	
중 학생	(204)	38.2	13.7	11.3	30.4	4.9	1.5	
⊗ 성 별 ⊗								
남 학생	(327)	32.7	12.2	16.5	34.3	2.4	1.8	
여 학생	(559)	33.5	16.5	12.9	30.6	4.1	2.5	
⊗ 학 년 별 ⊗								
중 3	(204)	38.2	13.7	11.3	30.4	4.9	1.5	
고 1	(227)	32.2	13.7	16.3	30.8	3.1	4.0	
고 2	(208)	28.8	16.3	15.4	33.7	4.8	1.0	
고 3	(247)	33.6	15.8	13.8	32.8	1.6	2.4	
⊗ 통일문제관심 ⊗								
관심 없음	(500)	32.8	15.8	12.0	33.0	3.6	2.8	
관심 있음	(386)	33.7	13.7	17.1	30.6	3.4	1.6	
⊗ 통일찬반별 ⊗								
통일되어야	(606)	36.6	12.4	16.5	29.0	3.0	2.5	$X^2=28.57$ $P=0.000$
통일안돼도	(280)	25.7	20.4	9.3	38.2	4.6	1.8	

2. 북한 관련 의식

1) 북한에 대한 규정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포용하

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44.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협력해야 하는 친구”(38.1%)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흡수해야 하는 지역”(9.9%), “대치하고 있는 적”(7.0%)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 대부분이 북한을 함께 살아야 할 동포나 협력해야 하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남 북정상회담이후 남한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7〉 북한에 대한 규정

- ‘학교별’로는 중학생(49.5%)이 고등학생(43.3%)보다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응답이 더 높게 들고 있다.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 ‘학년별’로는 중3(49.5%),고1(49.3%), 고3(43.7%)은 북한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2(38.5%)는 “협력해야 하는 친구”로 북한을 규정하는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은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57.8%)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협력해야 하는 친구”(41.6%)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북한에 대한 규정

구분	사례수	포용하고 함께살아 야할 동포	협력해야 하는친구	대치하고 있는적	흡수해야 하는지역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체	(886)	44.7	38.1	7.0	9.9	0.2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682)	43.3	39.1	7.0	10.3	0.3	
중학생	(204)	49.5	34.8	6.9	8.8		
☒ 성 별 ☒							
남학생	(327)	40.7	39.4	6.4	13.5		X ² =8.82 P=0.032
여학생	(559)	47.0	37.4	7.3	7.9	0.4	
☒ 학 년 별 ☒							
중 3	(204)	49.5	34.8	6.9	8.8		X ² =20.00 P=0.018
고 1	(227)	49.3	38.3	4.4	7.5	0.4	
고 2	(208)	36.1	38.5	10.1	15.4		
고 3	(247)	43.7	40.5	6.9	8.5	0.4	
☒ 통일문제관심 ☒							
관심없음	(500)	34.6	41.6	10.2	13.4	0.2	X ² =60.47 P=0.000
관심있음	(386)	57.8	33.7	2.8	5.4	0.3	
☒ 통일차별 ☒							
통일되어야	(606)	56.1	35.8	2.3	5.6	0.2	X ² =154.99 P=0.000
통일안돼도	(280)	20.0	43.2	17.1	19.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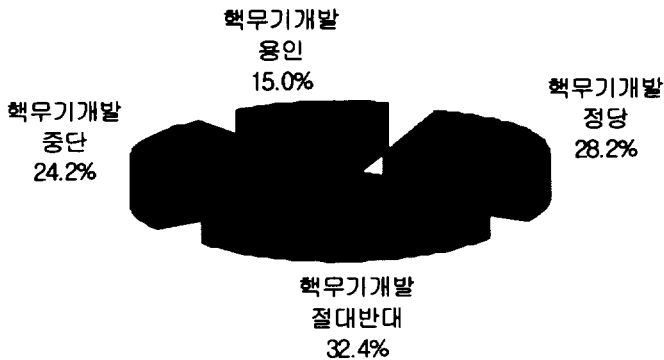
2)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의견

-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32.4%)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28.2%)는 응답과 "핵무기개발을 중단해야 한다"(24.2%)는 응답이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북제주군의 청소년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반대의견(절대반대, 개발 중단 56.6%)이 찬성의견(용인, 정당 43.2%)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핵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인 견해가 진보적인 견해보다 약간 높아 보인다.5)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에 찬성 의견은 보인 청소년들이 대략 42% 가

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다시 분석해보면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니까 괜찮다는 민족주의적 견해가 15% 정도, 북한 핵 개발의 이유가 미국의 압박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28.3%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청소년들 중 일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매우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2005년 국정홍보처의 조사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이 66.6%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 33.4%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기의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더욱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위협 느낀다)이 복제주군 청소년들의 경우 전국 청소년들보다 약 1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하겠다.



〈그림 8〉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의견

-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39.7%)은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

5)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성향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 경제정책에의 국가개입의 정도, 낙태허용의 정도 등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관계 등의 척도로써 진보와 보수 성향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북한에 호의적이며 한미관계보다 남북간의 민족문제를 더 중시한다면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호의적일 것이다.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더 중시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다”(30.4%)와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30.2%)는 응답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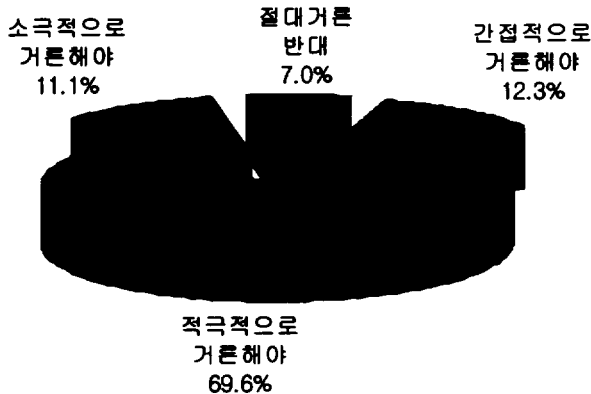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학생(36.7%)은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30.4%)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핵문제에 관한 한 여학생이 남학생(24.5%)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은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29.7%)와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30.0%)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은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37.5%)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표 8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의견 〉

구 분	사례수	핵무기 개발절대 반대	핵무기 개발중단	핵무기 개발용인	핵무기 개발정당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32.4	24.2	15.0	28.2	0.2	
⊗ 학교구분별 ⊗							X ² =11.91 P=0.008
고등학생	(682)	30.2	23.3	16.0	30.4	0.1	
중 학생	(204)	39.7	27.0	11.8	21.1	0.5	
⊗ 성 별 ⊗							
남 학생	(327)	36.7	22.0	16.5	24.5	0.3	
여 학생	(559)	29.9	25.4	14.1	30.4	0.2	
⊗ 학 년 별 ⊗							X ² =18.83 P=0.027
중 3	(204)	39.7	27.0	11.8	21.1	0.5	
고 1	(227)	31.7	23.3	15.9	29.1		
고 2	(208)	33.7	24.5	16.3	25.5		
고 3	(247)	25.9	22.3	15.8	35.6	0.4	
⊗ 통일찬반별 ⊗							
통일되어야	(606)	30.0	24.6	15.5	29.7	0.2	
통일안돼도	(280)	37.5	23.2	13.9	25.0	0.4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69.5%)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대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 결과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거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이상을 보이고 있어, 북제주군 청소년들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9〉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

-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74.0%)은 고등학생(68.2%)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71.0%)이 남학생(67.0%)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별 차이는 크지 않다.
-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78.5%)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학생’(62.6%)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76.4%)은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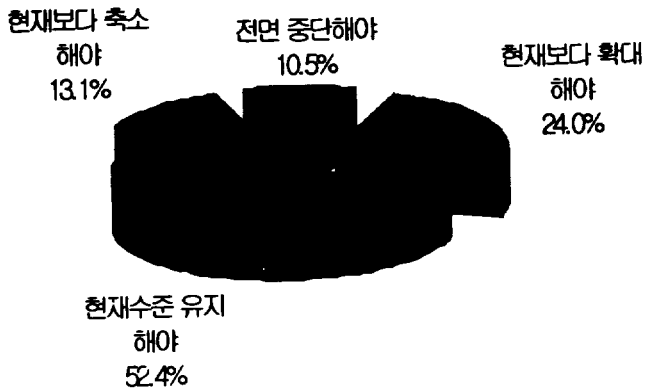
된다는 학생(54.6%)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표 9〉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적극적 거론해야	소극적 거론해야	절대거론 반대	간접적 거론해야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69.5	11.1	7.0	12.3	0.1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682)	68.2	10.9	7.5	13.3	0.1	
중 학생	(204)	74.0	11.8	5.4	8.8		
☒ 성 별 ☒							$X^2=13.20$ $P=0.004$
남 학생	(327)	67.0	12.8	10.4	9.8		
여 학생	(559)	71.0	10.0	5.0	13.8	0.2	
☒ 학 년 별 ☒							
중 3	(204)	74.0	11.8	5.4	8.8		
고 1	(227)	71.8	9.3	6.2	12.3	0.4	
고 2	(208)	69.7	8.2	8.7	13.5		
고 3	(247)	63.6	14.6	7.7	14.2		
☒ 거 주 지 별 ☒							
제 주 시	(400)	68.0	11.5	7.0	13.3	0.3	
북제주군	(440)	71.4	11.1	7.3	10.2		
서귀포시	(8)	50.0	25.0		25.0		
남제주군	(38)	68.4	2.6	5.3	23.7		
☒ 통일문제관심 ☒							$X^2=29.97$ $P=0.000$
관심 없음	(500)	62.6	12.2	9.8	15.2	0.2	
관심 있음	(386)	78.5	9.6	3.4	8.5		
☒ 통일찬반별 ☒							$X^2=49.82$ $P=0.000$
통일되어야	(606)	76.4	9.4	4.0	10.2		
통일안돼도	(280)	54.6	14.6	13.6	16.8	0.4	

4) 대 북한 농산물 지원에 대한 의견

- 북한주민에게 제주도의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0%,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13.1%,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0.5%로 나타났다. 현재수준 유지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고 있고,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정도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감귤 및 당근 등 농산물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0〉 대 북한 농산물 지원에 대한 의견

- '학교별'로는 중학생(57.4%)이 고등학생(50.9%)보다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등학생(24.8%)이 중학생(21.6%)보다 약간 높았다. '학년별'로 보면, 중3(57.4%)과 고1(52.0%) 그리고 고3(52.2%)은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2(48.1%)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적게 나타났다.
- '성별'로 보면, 여학생(56.2%)이 남학생(45.9%)보다 "현재수준을 유

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학생(30.6%)이 여학생(20.2%)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비교적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55.9%)’은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은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4.6%)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전면 중단해야 한다”(22.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농수산물 지원’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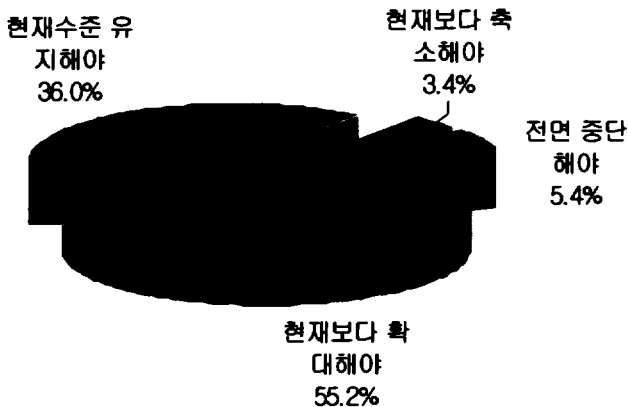
〈표 10〉 대 북한 농산물 지원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현재보다 확대	현재수준 유지	현재보다 축소	전면중단해야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24.0	52.4	13.1	10.5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682)	24.8	50.9	13.0	11.3	
중 학생	(204)	21.6	57.4	13.2	7.8	
⊗ 성 별 ⊗						
남 학생	(327)	30.6	45.9	10.7	12.8	$X^2=18.38$ $P=0.000$
여 학생	(559)	20.2	56.2	14.5	9.1	
⊗ 학 년 별 ⊗						
중 3	(204)	21.6	57.4	13.2	7.8	
고 1	(227)	25.6	52.0	12.8	9.7	
고 2	(208)	25.0	48.1	14.4	12.5	
고 3	(247)	23.9	52.2	12.1	11.7	
⊗ 통일문제관심 ⊗						
관심 없음	(500)	18.6	52.6	14.8	14.0	$X^2=30.12$ $P=0.000$
관심 있음	(386)	31.1	52.1	10.9	6.0	
⊗ 통일찬반법 ⊗						
통일되어야	(606)	28.9	55.9	10.1	5.1	$X^2=89.65$ $P=0.000$
통일안돼도	(280)	13.6	44.6	19.6	22.1	

5)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

-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확대"(55.5%), "현재 수준 유지"(36.0%), "현재보다 축소"(3.4%), 그리고 "전면 중단"(5.4%)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고 있고, 현재수준 유지와 확대 의견이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제주군의 청소년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005년 국정홍보처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현재수준유지(44.2%), 현재수준보다 확대(43.9%)로 나타나 북제주군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들보다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북제주군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현재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 전국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이는 상기한 바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북제주군 학생들이 전국 청소년들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

- '학교별'로는 중학생(68.1%)이 고등학생(51.0%)보다 "현재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응답이 비교적 더 많았다. '학년별'로는 중3(68.1%)과 고1(61.2%)이 "현재보다 확대해야 된다"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2와 고3은 각각 "현재보다 확대해야 된다"(45.2%, 46.6%)와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3.3%, 44.1%)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해 감정적인 판단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성별'로는 남학생(59.6%)이 여학생(52.2%)보다 현재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높았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거주지별'로는 북제주군 거주학생(60.9%)이 제주도 거주학생(49.0%)보다 확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귀포시 거주학생은 확대(25%), 전면중단(25.0%)를 보여 남북간 경제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례수가 많지 않아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64.8%)은 '통일문제에 관심 없는 학생'(47.4%)보다 "현재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은 "현재보다 확대해야 된다"(66.2%)는 의견을 가장 높게 들고 있으며,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은 확대(30.7%)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며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50.0%)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남북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현재보다 확대	현재수준 유지	현재보다 축소	전면중단 해야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55.0	35.9	3.4	5.4	0.3	
☒ 학교구분별 ☒							$X^2=20.10$ $P=0.000$
고등학생	(682)	51.0	38.9	3.5	6.3	0.3	
중 학생	(204)	68.1	26.0	2.9	2.5	0.5	
☒ 성 별 ☒							$X^2=12.94$ $P=0.004$
남 학생	(327)	59.6	29.4	3.4	7.6		
여 학생	(559)	52.2	39.7	3.4	4.1	0.5	
☒ 학 년 별 ☒							$X^2=47.65$ $P=0.000$
중 3	(204)	68.1	26.0	2.9	2.5	0.5	
고 1	(227)	61.2	29.1	4.8	4.4	0.4	
고 2	(208)	45.2	43.3	1.4	10.1		
고 3	(247)	46.6	44.1	4.0	4.9	0.4	
☒ 거주지별 ☒							$X^2=24.44$ $P=0.003$
제 주 시	(400)	49.0	39.5	3.8	7.3	0.5	
북제주군	(440)	60.9	32.5	3.2	3.4		
서귀포시	(8)	25.0	37.5	12.5	25.0		
남제주군	(38)	55.3	36.8		5.3	2.6	
☒ 통일문제관심☒							$X^2=31.91$ $P=0.000$
관심 없음	(500)	47.4	39.8	4.8	7.4	0.6	
관심 있음	(386)	64.8	30.8	1.6	2.8		
☒ 통일찬반별 ☒							$X^2=111.38$ $P=0.000$
통일되어야	(606)	66.2	29.4	2.3	2.1		
통일안돼도	(280)	30.7	50.0	5.7	1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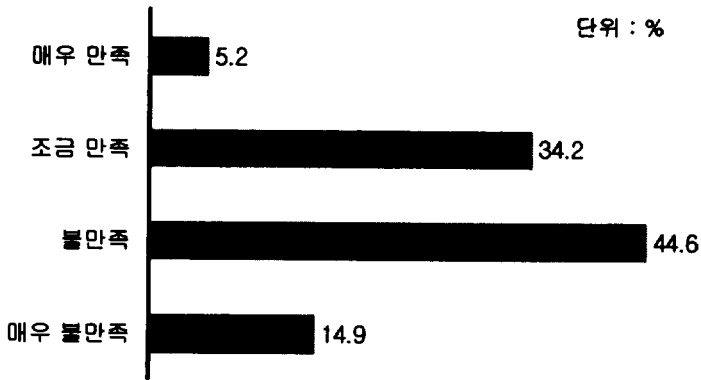
3. 통일교육 관련 의식

1) 학교의 통일교육 만족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44.6%), "매우 불만족"(14.9%), "조금 만족"(34.2%), "매우 만족"(5.2%)를 보였다.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39.4%에 불과하며, 특히 매우 만

족한 학생은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북제주군의 청소년들은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005년 국정홍보처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해 만족비율이 41.1%, 불만족비율이 58.9%를 보이고 있어, 북제주군 청소년의 태도와 거의 유사하다.



〈그림 12〉 학교의 통일교육 만족도

- '학교별'로는 고등학생(62.8%)이 중학생(48.5%)보다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중학생(51.0%)은 고등학생(35.9%)보다 "만족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별'로는 남학생(55.6%)보다 여학생(61.7%)이 불만족한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거주지'별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난 반면, '통일문제에 관심 없는 학생'은 29.4%만이 "만족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45.7%)은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25.7%)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72.5%)은 '그렇지 않은 학생'(53.5%)보다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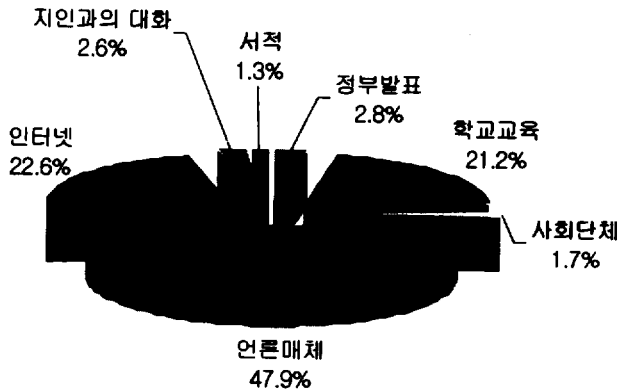
따라서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의 통일교육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2> 학교의 통일교육 만족도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불만족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평균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14.9	44.6	34.2	5.2	1.1	2.30	
☒ 학교구분별 ☒								F=11.49 P=0.000
고등학생	(682)	16.3	46.5	30.8	5.1	1.3	2.25	
중 학생	(204)	10.3	38.2	45.6	5.4	0.5	2.46	
☒ 성 별 ☒								
남 학 생	(327)	17.4	38.2	36.1	7.01	1.2	2.33	
여 학 생	(559)	13.4	48.3	33.1	4.1	1.1	2.28	
☒ 학 년 별 ☒								F=8.73 P=0.000
중 3	(204)	10.3	38.2	45.6	5.4	0.5	2.46	
고 1	(227)	9.7	46.3	37.0	6.2	0.9	2.40	
고 2	(208)	23.1	44.2	26.0	4.3	2.4	2.12	
고 3	(247)	16.6	48.6	29.1	4.9	0.8	2.22	
☒ 거 주 지 별 ☒								
제 주 시	(400)	17.3	47.0	29.8	5.5	0.9	2.36	
북제주군	(440)	13.2	42.0	38.4	5.5	0.9	2.36	
서귀포시	(8)		50.0	12.5		37.5	2.20	
남제주군	(38)	13.2	47.4	36.8		2.6	2.24	
☒ 통일문제관심 ☒								F=44.39 P=0.000
관 심 없 음	(500)	18.6	50.6	25.6	3.8	1.4	2.15	
관 심 있 음	(386)	10.1	36.8	45.3	7.0	0.8	2.50	
☒ 통일찬반별 ☒								F=42.27 P=0.000
통일되어야	(606)	11.4	42.1	38.9	6.8	0.8	2.41	
통일안돼도	(280)	22.5	50.0	23.9	1.8	1.8	2.05	

2)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 경로

-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 경로’에 대해 ‘언론매체’가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터넷(21.6%)과 학교교육(2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과의 대화(2.6%), 정부발표 자료(2.8%), 사회단체(1.7%), 서적(1.3%) 등은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 2005년 국정홍보처의 조사에서도 언론매체(50.8%), 학교교육(25.9%), 인터넷(11.7%)를 보여, 복제주군 청소년들의 응답과 매우 유사하다.



〈 그림 13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 경로 〉

- ‘학교별’로 보면, “언론매체”가 가장 높은 지식습득 경로로 나타나는 가운데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은 중학생(27.0%)이 고등학생(18.2%)보다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지식습득 비율이 여학생(47.9%)이 남학생(41.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언론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이 많은 것(중3-40.7% → 고3-49.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고3-13.4% → 중3-27.0%)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정도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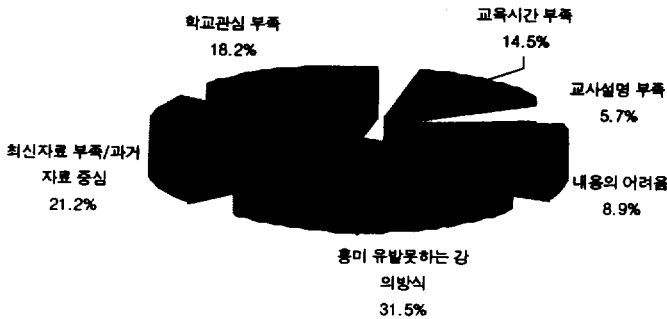
-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521%)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학생'(40.8%)보다 "언론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48.5%)'은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39.6%)'보다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 및 지식 습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 경로

구 분	사례수	정부 발표	학교 교육	사회 단체	언론 매체	인터넷	친지 대화	서적	기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2.7	20.2	1.6	45.7	21.6	2.5	1.2	1.2	
⊗ 학교구분별 ⊗										X ² =15.20 P=0.034
고등학생	(682)	2.8	18.2	2.1	47.2	21.4	2.5	1.2	1.6	
중 학생	(204)	2.5	27.0		40.0	22.1	2.5	1.5		
⊗ 성 별 ⊗										
남 학생	(327)	3.1	20.5	2.1	41.9	22.3	3.4	1.8	1.5	
여 학생	(559)	2.5	20.0	1.3	47.9	21.1	2.0	0.9	1.1	
⊗ 학 년 별 ⊗										X ² =36.63 P=0.020
중 3	(204)	2.5	27.0		40.7	22.1	2.5	1.5		
고 1	(227)	1.8	25.6	1.8	44.1	19.8	0.4	0.9	2.2	
고 2	(208)	2.9	15.9	1.9	47.6	22.6	4.3	1.0	1.0	
고 3	(247)	3.6	13.4	2.4	49.8	21.9	2.8	1.6	1.6	
⊗ 통일문제관심 ⊗										X ² =16.23 P=0.023
관심 없음	(500)	2.4	22.2	2.0	40.8	23.2	1.8	1.2	1.8	
관심 있음	(386)	3.1	17.6	1.0	52.1	19.4	3.4	1.3	0.5	
⊗ 통일찬반별 ⊗										X ² =15.65 P=0.029
통일되어야	(606)	2.8	18.8	1.7	48.5	21.6	2.8	1.0	0.5	
통일안돼도	(280)	2.5	23.2	1.4	39.6	21.4	1.8	1.8	2.9	

3) 통일 교육의 우선적 개선 사항

- 학교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강의방식”(31.0%), “최신자료 부족 및 과거자료 중심”(20.8%), “학교의 관심부족”(18.2%), “교육시간 부족”(14.5%), “내용의 어려움”(8.9%), “교사설명 부족”(5.7%)의 순을 보였다. 이 자료 결과는 청소년들이 통일교육 방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부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일교육 방식이 새로운 최신의 자료를 가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 그림 14 통일 교육의 우선적 개선 사항 〉

- ‘성별’로 보면, 여학생(33.3%)은 남학생(27.2%)보다 “강의방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23.5%)은 여학생(19.1%)보다 “최신자료 부족 및 과거자료 중심”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더 높게 보고 있다.
- ‘학년별’로 보면, 고2 학생이 38.5%로 “강의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고3

학생은 25.9%로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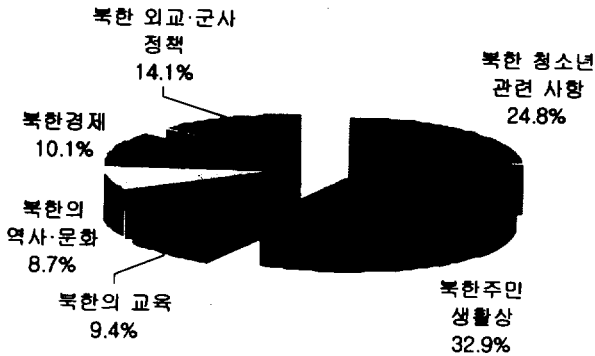
- '통일문제에 관심 없는 학생'(34.0%)은 '관심 있는 학생'(27.2%)보다 "강의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더 높게 들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25.1%)은 '관심 없는 학생'(17.4%)보다 "최신자료 및 과거자료 중심"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학생'(23.9%)은 상대적으로 "최신자료 및 과거자료 중심"의 개선사항을 더 중시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학생'(36.1%)은 "강의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통일 교육의 우선적 개선 사항

구 분	사례수	최신자료부족	학교관심부족	교육시간부족	교사설명부족	내용어려움	강의방식	모르겠다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20.8	17.9	14.3	5.6	8.7	31.0	1.6	
⊗ 성 별 ⊗									$X^2=14.46$ $P=0.013$
남 학생	(327)	23.5	16.5	14.4	8.9	8.6	27.2	0.9	
여 학생	(559)	19.1	18.8	14.3	3.8	8.8	33.3	2.0	
⊗ 학 년 별 ⊗									$X^2=29.11$ $P=0.016$
중 3	(204)	21.6	14.7	19.6	3.4	8.3	31.4	1.0	
고 1	(227)	23.8	17.6	16.3	4.8	6.6	29.5	1.3	
고 2	(208)	18.3	19.2	9.1	6.3	6.7	38.5	1.9	
고 3	(247)	19.4	19.8	12.6	7.7	12.6	25.9	2.0	
⊗ 통일문제관심 ⊗									$X^2=22.83$ $P=0.000$
관심 없음	(500)	17.4	16.4	12.8	6.0	11.4	34.0	2.0	
관심 있음	(386)	25.1	19.9	16.3	5.2	5.2	27.2	1.0	
⊗ 통일찬반별 ⊗									$X^2=26.13$ $P=0.000$
통일되어야	(606)	23.9	19.1	15.0	5.4	6.4	28.7	1.3	
통일안돼도	(280)	13.9	15.4	12.9	6.1	13.6	36.1	2.1	

4) 북한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내용

□ 통일교육 중 북한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31.0%)과 “북한 청소년 관련 사항”(23.4%)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북한 외교·군사정책(14.1%), 북한경제(10.1%), 북한교육(9.4%), 북한 역사문화(8.7%)를 보이고 있어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다. 이 자료 결과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응답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북한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내용

-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북한주민의 생활상”(31.5%)과 “북한 청소년 관련 사항”(23.9%)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교육”(12.7%)과 “북한의 역사나 문화”(8.2%)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 ‘성별’로는 여학생(37.0%)이 남학생(20.8%)에 비해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20.2%)은 여학생(9.3%)에 비해 “북한의 외교·군사정책”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북한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내용

구 분	사례수	청소년 관련 사항	주민 생활상	교육	역사 문화	경제	외교 군사 정책	기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886)	23.4	31.0	8.9	8.2	9.5	13.3	1.9	
⊗ 학교구분별 ⊗									
고등학생	(682)	23.9	31.5	7.8	7.6	10.0	13.6	2.2	
중 학생	(204)	21.6	29.4	12.7	10.3	7.8	12.3	1.0	
⊗ 성 별 ⊗									$\chi^2=45.26$ $P=0.000$
남 학생	(327)	21.4	20.8	11.9	8.6	11.9	20.2	1.8	
여 학생	(559)	24.5	37.0	7.2	8.1	8.1	9.3	2.0	
⊗ 학 년 별 ⊗									
중 3	(204)	21.6	29.4	12.7	10.3	7.8	12.3	1.0	
고 1	(227)	26.4	29.1	7.9	6.2	12.8	11.0	2.2	
고 2	(208)	25.0	30.8	7.7	7.2	11.5	13.5	1.9	
고 3	(247)	20.6	34.4	7.7	9.3	6.1	16.2	2.4	
⊗ 통일문제관심 ⊗									
관심 없음	(500)	22.0	30.4	7.4	7.8	11.0	13.6	2.6	
관심 있음	(386)	25.1	31.9	10.9	8.8	7.5	13.0	1.0	
⊗ 통일찬반별 ⊗									
통일되어야	(606)	25.1	31.2	9.4	8.4	9.2	13.7	1.2	
통일안돼도	(280)	19.6	30.7	7.9	7.9	10.0	12.5	3.6	

IV. 요약 및 제언

상기한 바의 제주도 복제주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제주군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 학생들이 56.5%로, 관심이 있다고 한 학생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 관심 있다(58.8%)는 학생들이 조금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복제주군의 청소년들의 관심이 전국 청소년들보다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 없는 평화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4%의 학생들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국 조사에서는 81.9%의 학생들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와 비추어보면, 북제주군 청소년들의 통일 열망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86.5%를 보여, 관심이 많을수록 통일 열망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더 높았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로는 한민족의 정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36.6%)가 가장 많았으며, 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30.5%)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공동체적, 정의적 입장에서 보다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통일 문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약간 많다고 판단된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학생(290명)들은 그 이유로서 남북한 주민들간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가장 많이 들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지도층의 이해가 다른 점과 남과 북이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집해서라는 점을 높게 들었다. 즉, 청소년들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를 남북한 국민들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보다 지도층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들은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44.7%) 내지는 협력해야 하는 친구(38.1%)로 응답하는 견해가 가장 높고, 대치하고 있는 적(7.0%)이라는 견해는 매우 낮게 나타나, 북한을 동포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견해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핵개발 반대 의견(56.6%)이 찬성 의견(4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핵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인 견해가 진보적인 견해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북한 핵무기도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니까 괜찮다는 민족주의적 견해도 15% 정도, 북한 핵개발은 정당하다는 견해도 28.3%를 보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핵문제에 대해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 핵개발반대(위협 느낀다)의견이 66.6%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략 10%정도 북제주군 청소년들이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거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인권문제에 관한 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핵문제와는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북한 주민에 대한 감귤 및 당근 등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의 유지(52.4%)와 확대(24.0%)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고 있어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농산물 지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수준 유지(36.0%)와 확대(55.5%) 의견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현재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전국 청소년들의 견해(43.9%)보다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기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태도에서처럼 북제주군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들보다 좀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통일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불만족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언론매체(45.7%), 인터넷(21.6%), 학교교육(20.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6) 장원석, 양길현 교수가 2004년에 실시한 제주도민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전국 평균치보다 대략 10% 정도가 더 진보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물론 동일한 설문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해도 대략적인 추세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분석은 장원석·양길현, “제주도민의 북한 및 통일관련 의식조사: 비교론” (제주대학교 통일연구소, 2005), 119-116쪽 참조.

대한 정보 습득을 거의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 형제 등과의 대화 등은 26%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해 부모님들과 거의 대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강의방식과 최신자료의 부족을 높게 들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북한의 청소년 관련 사항을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북제주군 청소년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북한 및 통일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제주군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 청소년들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통일교육에 더욱 만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60% 정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최신자료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거론한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자들이 최신자료에 바탕을 두어 강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매달 발행하는 북한관련 비디오를 활용한다든가, 통일부나 민주평통의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학교의 강의중심 교육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견학이나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을 통해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금강산을 직접 견학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든가, 제주도의 경우 매년 감귤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귤을 보내는 현장을 직접 견학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사항 중에 외교나 군사정책, 경제 등의 문제보다 북한주민의 생활상이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탈북자나 탈북청소년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진솔한 경험담이야말로 가장 최신의 북한에 관한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들 중 일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문제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만은 어려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존 핵강대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핵 비보유국가는 핵을 갖지 않겠다는 비확산조약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불평등조약인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는 핵 확산이 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이 조약을 확산을 막는 중요한 규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하게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 경쟁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정도의 학생들만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는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 태도가 객관적이고 엄정한 공정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시각에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보도 태도가 요청된다. 학교 교육에서도 어느 한 시각에 초점을 맞춘 교육보다 북한 및 통일문제를 다

양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오늘의 청소년들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복제주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았다. 특이한 것은 제주도의 청소년들이 북한 핵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 전국의 청소년들보다 대략 10% 정도 더 진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설문내용을 가지고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 정도로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은 물론,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서의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남녀의 성별, 거주지별, 학년별 등의 배경변인을 가지고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성별과 학년별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을 뿐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을 배경 변인으로 제공했다면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 같아 처음부터 제외하였다. 이런 점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태도만을 추출해보려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 김항원·고성준·강근형·김진영.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박성희·박정선.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3호 (1993 여름).
- 변종현·강인숙. “6·15 공동선언이후 제주도민의 통일의식: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제주도의 역할」. 제5회 제주평화통일포럼 자료집. 2005. 6. 2.
- 손기웅.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창식·김윤정. “N세대가 지각한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2002).
- 장원석·양길현. “제주도민의 북한 및 통일관련 의식조사: 비교론적 발견,” 「대한정치학회보」. 12집 3호 (2005).
- (주) 월드리서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서울: 월드리서치, 2005.
- 통일부. 「통일백서」. 2006.

<ABSTRACT>

Unification Attitudes of Bukjeju County's Students

Kun-Hyung Kang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iming to study the attitudes and interests of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kjeju County of Jeju Province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matter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s far as the North and unification matters are concerned,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little or no interest is slightly higher than those who have interest. They think that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and they prefer unification by peaceful methods rather than by war. Primarily they think unification should be realized on account of Korean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y regard North Koreans as brothers or friends, who are working together.

Seco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negative opinions are more than those who have positive opinions in the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pproximately 43% of students have strong progressive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e students have prevailing attitudes that the human right issues of the North should evoke much more controversy among the domestic public, as well as the world. They show positive attitudes about Jeju citizens' supporting projects of supplying agricultural products to North Korea. About 56% of students also think that economic cooperation towards North Korea should be increased more than the current level.

Third,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not satisfied with unification classes in school are more numerous than the students who are satisfied with the classes. Students mainly are getting all kinds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through the media and internet. The teaching methods and lack of recent materials were highlighted by students, as needing improvement. They are also eager to know the lifestyle of ordinary

North Korean people and students. The most characteristic factor is that students of Bukjeju County show about 10% more progressive attitudes towards nuclear issues and economic aid for North Korea, than students nationwide.

Key words : Unification attitudes, Unification education, Peaceful unification, The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Korean Nuclear issues, Human right issues,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aid, Media, Teaching method, Research survey